AI 뉴스와 용어
월·수·금 오전 7시

METAL
First, AI Magazine

무료 · 언제든 수신거부
metallab.ai

제 49 호 |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 오늘의 AI

비즈니스

SAP코리아, 성장기업 지원 NEXT 100 발표

SAP코리아가 하나은행·비자·PwC·ASPN·블루어드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100곳을 뽑아 8개월간 진단부터 ERP 구축과 안정화까지 돕는다. 2,500만원 상당 진단은 무상이고, 1차 모집은 10월 31일까지, 2차 모집은 11월 1일부터다.



비즈니스 · SAP코리아, 성장기업 지원 NEXT 100 발표

SAP코리아가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중견 성장기업 도약 지원사업 SAP NEXT 100을 발표했다. 기업 100곳을 뽑아 8개월 동안 성장 진단부터 SAP 클라우드 ERP 구축과 안정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과 비자 코리아, PwC 코리아, ASPN, 블루어드 등 파트너 5곳이 금융·결제·컨설팅·구축을 나눠 맡는다. 1차 모집은 10월 31일까지이고, SAP코리아에 따르면 2차 모집은 11월 1일부터 바로 이어진다.

선정 기업이 받는 것은 두 묶음이다. 먼저 디지털 전환 로드맵 컨설팅과 비즈니스 AI 준비도 진단, 성장혁신 컨설팅으로 구성된 2,500만원 상당의 성장 진단 패키지를 무상으로 받는다. 이어 SAP 라이선스 특별가와 하나은행·비자 연계 혜택을 묶은 최대 수억 원 규모의 도입 지원 패키지가 단계적으로 붙는다. SAP코리아는 안내 자료에서 이를 반값 도입 패키지라고 불렀고, 발표자료에는 가격과 지원 규모가 개별 선정 결과와 적용 범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할인이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지원 자격은 NICE평가정보 기준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SAP 퍼블릭 클라우드 ERP 도입을 원하는 곳이다. 업종 제한은 없다. 강지훈 SAP코리아 중견·중소기업 고객 사업부문장은 간담회에서 "업종 가리지 않고 25개 산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고객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SAP코리아가 바라는 기업상은 세 가지다. 새 제품과 고객, 사업모델로 시장을 넓히려는 기업, AI를 실제 업무에 쓰고 싶은 기업, 직원이 부서 업무를 넘어 회사 전체를 보고 일하길 바라는 기업이다. 발표자료는 공통 조건을 "지금의 일하는 방식을 바꿔서라도 한 단계 성장하겠

선정 뒤 8개월은 네 단계로 짜여 있다. 첫 달 디스커버에서 경영·업무·데이터의 병목을 진단하고, 둘째 달 디자인에서 글로벌 표준과 AI 로드맵을 설계한다. 이어 4개월의 빌드에서 SAP 클라우드 ERP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마지막 2개월의 그로우에서 교육과 안정화, 고도화를 지원한다. 강 부문장은 "앞단에 2개월간의 진단이 있다. 경영 컨설팅, 디지털 컨설팅 같은 진단은 SAP와 파트너가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 고객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은 클라우드 구독 방식이라 보통 3년에서 5년 단위이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종료할 수 있다.

강 부문장은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를 자신의 경험으로 설명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스타트업 대표에게 비용 부담을 생각해 저렴한 도구를 먼저 쓰고 몇 년 뒤 SAP를 하자고 권했는데, 3년 뒤 다시 연락한 그 대표는 세 가지를 호소했다. 프로젝트별로 어디서 언제 수익이 나는지 보이지 않고, 월 결산에 열흘 안팎이 걸리는데 수기 작업이라 물을 때마다 답이 다르며, 6개월이면 된다던 정산 시스템 구축이 1년 반째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 부문장은 "3년 전에 말씀드렸던 금액 대비 5배 이상"의 비용이 들었다며, 가장 큰 고민은 돈이나 시간보다 직원들이 새 프로세스에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ERP(전사적 자원관리)는 회사의 재무와 구매, 재고, 인사를 한 장부에 모으는 소프트웨어다. 회사가 작을 때 장부를 하나로 두지 않으면 커진 뒤에는 부서마다 다른 장부를 다시 합치는 일부터 해야 하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 배관을 다시 까는 것과 같은 일이다.

김준영 SAP코리아 부사장은 환영사에서 "성장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 기반을 제대로 갖춘 기업일수록 이후의 성장

PwC 코리아는 올해 새로 만든 Grow Fast 구축 방법론과 표준 템플릿으로 구축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무상 비즈니스 진단과 디지털 준비 진단 플랫폼을 맡는다. 천재문 PwC코리아 상무는 "기존 관행을 고수하기보다 표준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프로젝트 시작부터 오픈 이후까지 지속적인 변화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ERP 도입을 기업의 체질을 바꾸는 경영 혁신으로 인식해야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얻는다며, 중소·중견기업이 변화 관리 없이 시스템을 열면 "그 자리에서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ASPN은 2003년부터 20년 넘게 SAP ERP를 구축해 온 회사로, 성장기업 규모에 맞춘 패키지형 구축과 도입 이후의 AI 활용을 맡는다. 올해 1월에는 SAP의 비즈니스 AI 부문 파트너 혁신상을 받았다. 이성훈 ASPN 상무는 성장기업에는 재무 모듈부터 시작해 물류와 생산으로 블록을 쌓듯 넓혀 가는 방식을 권했다. 그가 든 AI 활용 예는 세 가지다. 전표를 만들 때 AI가 업종별 계정을 자동 분류하고 접대비 한도 10만원 같은 회사 규정에 맞춰 결재 라인까지 잡아 주어 5분 넘게 걸리던 일이 몇 초로 줄고, 월 결산 때 운송 중이거나 생산 중인 재고가 빠지지 않았는지 AI가 점검하며, 월 단위를 넘어 일 단위 결산 수준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상무는 "복잡하고 계속 바뀌는 업무 정책에 대응하는 일반 업무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블루어드는 옛 ISTN이 INF컨설팅과 합치며 지난해 사명을 바꾼 회사로, 클라우드 전환 컨설팅부터 구축·운영, 자금관리·펌뱅킹 연계, AI 에이전트 플랫폼까지 맡는다. AI로 필요한 기능만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천석범

오늘 지면

1 비즈니스 SAP코리아, 성장기업 지원 NEXT 100 발표
2 AI 오픈AI, COBOL·Fortran 코딩 평가 공개
3 AI 오픈AI, 챗GPT 워크 가맹점주 운영 사례 공개
4 비즈니스 앤스로픽 연방 AI 안전 법안 초안 유출
5 비즈니스 생고뱅,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 시멘트 연구 적용
6 기후 센트럴조지아EMC, 가정용 배터리 50MW 배치


아마존, 2027년 독일에 160억 유로 투자 발표


리퀴드AI·퀄컴, 기기 속 개인 맥락 계층 발표

이 지면은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구독자 메일함으로 나간 레터를 신문 판형으로 다시 조판한 것입니다. 기사 전문은 metallab.ai 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앤스로픽 연방 AI 안전 법안 초안 유출

앤스로픽이 미국 의회 일부 의원실에 돌려 온 연방 AI 안전 법안 초안이 지난주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AI 안전 진영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9월 29일 마지막으로 수정된 37쪽 분량의 초안은 상무부를 프런티어 AI 규제 기관으로 세우고 대형 개발사에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와 외부 평가, 사고 보고를 의무로 지운다. 동시에 주 정부가 같은 영역에 독자 규칙을 두지 못하게 막고, 위험한 모델을 멈추려면 연방 법원의 높은 문턱을 넘도록 했다. 앤스

▶ 2면에 계속

AI

오픈AI, COBOL·Fortran 코딩 평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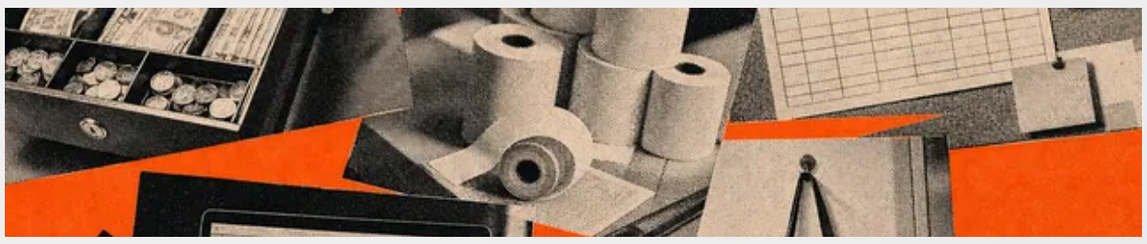


오픈AI(OpenAI)가 19일(현지시간) COBOL과 Fortran, Visual Basic 같은 저자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자사 최신 AI 모델의 코딩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새로 만든 평가 두 가지에서 최신 모델은 이전 세대보다 크게 높은 점수를 냈다. COBOL 프로그램을 다른 언어로 옮기는 평가에서 GPT-6.1 Sol은 낮은 추론 강도로 86.6%의 정확도를 기록했고, 같은 설정에서 GPT-5.6 Sol은 5.4%에 그쳤다. 추론 강도를 높이자 정확도는 97.9%까지 올라 평가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저자원 언어는 Python이나 JavaScript보다 모델이 배울 코드와 문서가 적은 언어를 가리킨다. 그런데도 이 언어들은 세계 곳곳의 핵심 기반 시설과 필수 서비스를 떠받친다. 오픈AI가 발표문에 인용한 수치에 따르면 COBOL은 온라인 뱅킹 시스템의 40% 이상, 대면 신용카드 거래의 80%, ATM 거래의 95%를 지탱한다. Fortran은 일기예보와 원자로 안전 해석에 쓰인다. 보도에 따르면 COBOL 수치는 IBM의 추산이다.

AI

오픈AI, 챗GPT 워크 가맹점주 운영 사례 공개



오픈AI가 미국 뉴멕시코에서 샌드위치·시나몬롤 공동 브랜드 매장 세 곳을 운영하는 독립 가맹점주의 챗GPT 워크 사용 사례를 10월 20일 공개했다. 이 가맹점주는 월별 현금 대사에 걸리던 시간을 94% 줄였고 메뉴 가격 재조정에 걸리던 닷새를 1~2시간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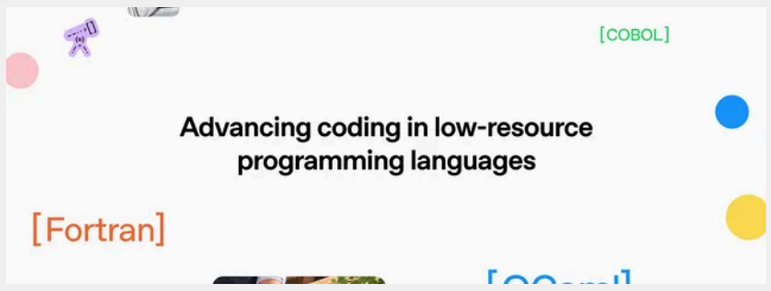
사례의 주인공은 반도체 업계에서 25년을 일한 뒤 외식업에 들어온 테드 테일러다. 그는 손님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곧 메뉴 가격 책정과 인력 배치, 장비 정비, 사내 규정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모델을 쓰고 있다. "챗GPT 워크의 추천이 워낙 좋아서 거기서 시작한 뒤 손보는 쪽이 훨씬 빠르다." 테일러의 말이다.

▶ 2면에 계속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COBOL·Fortran 코딩 평가 공개



1 오픈AI가 COBOL·Fortran·Visual Basic 같은 저자원 프로그래밍 언어용 평가 두 가지를 만들어 최신 모델의 코딩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2 SQLite 호환 엔진을 20개 언어로 짓는 MultiLangBench에서 GPT-6 Astra는 평균 87.4%를 통과해 GPT-5.6 Sol의 26.8%를 크게 넘었고, COBOL은 72.1%로 가장 어려운 언어였다.

3 COBOL 이전 평가에서 GPT-6.1 Sol은 낮은 추론 강도로 86.6%(GPT-5.6 Sol 5.4%)를 39% 적은 비용으로 기록했고, 높은 강도에서 97.9%에 이르렀다.

오픈AI는 X 게시물에서 "이 언어들은 은행과 정부, 기업이 의존하는 소프트웨어를 움직인다"며 "여기서의 진전은 수십 년 쌓인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고, 잘 돌아가는 것은 지키면서 개발자가 그 시스템을 현대화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작업이 코딩 모델이 이런 언어에서 자주 헤맨다는 개발자와 기업 고객의 피드백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문서가 불완전하고, 원래 개발자가 회사를 떠났고, 중요한 업무 규칙이 코드 안에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메탈이 확인한 이 X 게시물의 조회수는 20일 오후 기준 50만 9천여 회, 좋아요는 4,600여 개였다.

첫 번째 평가 MultiLangBench는 모델에게 SQLite와 호환되는 데이터베이스 엔진을 20개 프로그래밍 언어로 처음부터 만들게 한다. 모델은 코드베이스를 짜고, 상태를 관리하고, 오류를 처리하고, 기존 기능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새 기능을 더해야 한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잣대로 재기 위해 오픈AI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공통 접점으로 삼았다. 후보 프로그램이 초기 데이터베이스와 SQL 질의를 받아 수정된 데이터베이스를 내놓으면, 원본 SQLite 구현으로 결과물이 기대한 내용을 담았는지 확인한다. 시험 문항은 SQLite의 기존 테스트 모음을 이 형식에 맞게 고친 것이다.

최대 추론 강도에서 GPT-6 Astra는 20개 언어 평균 87.4%의 테스트 통과율을 기록했다. GPT-5.6 Sol의 26.8%에서 크게 오른 수치이고, 시험한 모든 언어에서 점수가 올랐다. COBOL은 10.9%에서 72.1%로, OCaml은 25.6%에서 85.8%로, Fortran은 21.4%에서 83.5%로, Visual Basic은 27.5%에서 89.4%로 뛰었다. Astra는 20개 언어 가운데 19개에서 83%를 넘었고, COBOL만 72%로 가장 어려운 언어로 남았다. 공개된 도표에서 GPT-6.1 Sol의 평균 통과율은 87.04%로 Astra의 87.39%와 거의 같았고, GPT-6 Sol은 57.66%였다.

◀ 1면에서 계속

AI

오픈AI, 챗GPT 워크 가맹점주 운영 사례 공개



1 오픈AI는 뉴멕시코에서 공동 브랜드 매장 세 곳을 운영하는 독립 가맹점주 테드 테일러의 챗GPT 워크 사용 사례를 10월 20일 공개했다.

2 월별 현금 대사는 세 시간에서 5~10분으로 94% 줄었고, 메뉴 가격 재조정은 닷새에서 1~2시간으로 95% 줄었다.

3 근무표 작성을 맡겨 시간제 인건비를 매출 대비 1~2%포인트 낮추면 연간 5만~10만 달러의 현금이 풀릴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가격 재조정은 해마다 한 번 돌아오는 큰 작업이다. 조리법 원가와 품목별 인기, 주변 경쟁 매장의 가격, 1인분 양, 매장 주문과 배달 주문의 서로 다른 수익 구조를 한꺼번에 따져야 한다. 테일러는 이 요소들을 모델에 모아 넣어 품목별 권장가를 받는다. "예전에는 품목 단위 가격을 분석해 내놓는 데 며칠이 걸렸는데, 챗GPT 워크는 순식간에 해치우고 더 꼼꼼하게 한다." 그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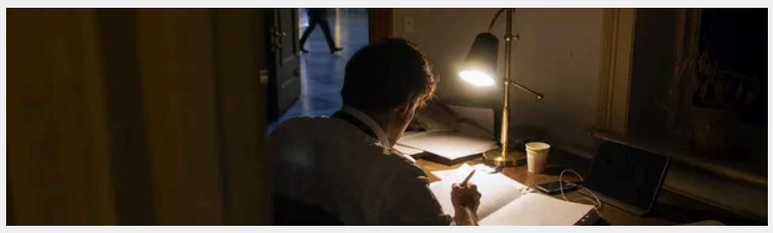
절차는 두 단계다. 먼저 경쟁 매장의 가격 추세와 1인분 양, 상대적인 음식 품질로 가격 목표와 전략을 세운다. 그다음 분류해 둔 메뉴 목록에 현재의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붙여 넣고, 전체 인상 폭과 더 올리거나 덜 올릴 품목을 지정한다. 품목별 판매 이력과 공급가를 더 넣으면 가격 변동에 따른 판매량 영향까지 추정한다. 결과물은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함께 적힌 스프레드시트다.

첫해에는 같은 작업을 손으로도 해 봤다. 테일러는 모델 쪽이 지역 비교를 더 깊게 했고 일부 품목을 경쟁력 없게 만들 인상을 피하게 해 줬다고 밝혔다. 그는 그 뒤로 첫 권고안을 모델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꿨다.

◀ 1면에서 계속

비즈니스

앤스로픽 연방 AI 안전 법안 초안 유출



1 앤스로픽이 의회 일부 의원실과 공유한 37쪽 연방 AI 안전 법안 초안이 지난주 유출됐다. 상무부를 규제 기관으로 세우고 대형 개발사에 안전 프레임워크 공개, 독립 평가, 사고 보고를 의무로 지운다.

2 모델을 멈추려면 상무부 장관 서명과 독립 평가를 붙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차단 명령을 받아야 하고, 명령은 45일이면 끝난다. 주 정부는 공개·평가·사고 보고 영역에서 독자 규칙을 둘 수 없다.

3 인코드의 네이선 캘빈은 현행법보다 보호가 약해진다고 비판했고, 앤서니 시미노 앤스로픽 연방 업무 책임자는 선점 문구를 고치고 평가 기관 요건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의무의 골격은 공개와 검증이다. 대형 개발사는 법 시행 90일 안에 열한 가지 항목을 담은 안전 프레임워크를 써서 공개하고, 책임 임원이 해마다 준수 여부를 서명해 상무부에 낸다. 180일마다 위험 보고서를 공개하고 가리지 않은 원본은 이사회에 넘긴다. 독립 평가 기관을 최소 한 곳 두고 180일마다 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하며, 평가 기관은 가장 강력한 모델과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정보에 접근한다. 모델 가중치 유출, 통제 상실로 인한 인명 피해, 모델이 격리 장치를 벗어나 외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격리 실패 같은 중대 안전사고는 15일 안에, 사람이 다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24시간 안에 보고한다. 보안 점검 항목에는 레드팀 훈련과 함께 증류 공격 감시가 들어갔다. 위반하면 100만 달러와 세계 연 매출의 일정 비율 가운데 큰 금액을 상한으로 민사 벌금을 물리는데, 비율 칸은 아직 비어 있다.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열거 위험이라는 정의가 있다. 단일 사고에서 50명 넘는 사망·중상이나 10억 달러 넘는 재산 피해에 모델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위험으로, 생물무기 제작 지원, 개발사 통제 회피, 공격적 사이버 작전, 이 셋을 크게 앞당기는 AI 자동 연구개발 네 가지로 한정했다. 상무부가 모델을 멈추려면 상무부 장관이 위임 없이 서명한 서면 판단과 독립 평가를 붙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차단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급박한 열거 위험이 있고, 명령이 꼭 필요하며, 덜 제한적인 수단이 없고, 범위가 최소한이라는 네 가지를 증거 우위로 확인해야 하고, 상무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따진다. 명령은 45일이 지나면 저절로 끝나고 45일씩 연장할 수 있다. 개발사 의견을 듣기 전에 내리는 긴급 명령은 7일이 한도이고 같은 모델과 같은 위험에 한 번만 쓸 수 있다. 명령으로 모델 가중치나 학습 데이터를 지우게 할 수도 없다.

비판은 바로 이 문턱을 겨눴다. 인코드의 법률고문 네이선 캘빈은 X에 "이 법안을 읽으며 여러 대목에서 본능적인 분노를 느꼈다"며 "통과되면 현행법보다 파국적 위험에 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썼다. 그는 법원이 차단 명령이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끼칠 피해는 따지도록 명시하면서 반대 방향의 고려는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글은 11만9000회 넘게 조회됐다. 보도에 따르면 AI 안전 진영은 이 초안이 오버놀티·트러헌 의원의 FRONTIER 법안보다 약하고, 평가 기관에 자격 기준이 없어 가장 덜 번거로운 감사를 가장 싸게 파는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

생고뱅, 마이크로소프트 디스커버리 시멘트 연구 적용

생고뱅이 에이전트형 연구 플랫폼 디스커버리로 특허 6만2000건과 초록 4만4000건을 두어 시간 만에 정리했다. 1년 걸릴 자료 기반 구축을 줄여 약 6주 만에 새 시멘트 첨가제 가설을 세웠다.



1 생고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전트형 연구 플랫폼 디스커버리를 시멘트 첨가제 연구에 적용해 특허 6만2000건과 초록 4만4000건을 두어 시간 만에 모아 정리했다고 밝혔다.

2 시멘트 생산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약 7%를 차지하며, 회사는 클링커 사용을 약 20% 줄이는 기존 첨가제보다 더 나아간 화합물을 찾고 있다.

3 생고뱅은 9월 1일 자로 아니카 하겐을 최고인공지능책임자로 임명했고, 석고보드 주문 재단 방식으로 설치 시간을 30% 줄였다고 밝혔다.

생고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이전트형 연구 플랫폼 디스커버리를 시멘트 첨가제 연구에 적용해 연구자가 1년 걸릴 자료 기반 구축을 두어 시간으로 줄였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연구팀은 특허 6만2000건과 초록 4만4000건을 모아 추려 낸 뒤 약 6주 만에 시험할 만한 새 첨가제 후보 가설을 여러 건 세웠다. 목표는 시멘트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분을 덜 쓰면서도 강도는 높이는 화합물이다.

"이 기술이 없었다면 연구자들이 자료 기반을 만드는 데 1년이 걸렸을 것이다. AI를 써서 두어 시간이 걸렸다." 이 프로젝트를 맡은 모지데 라스트구르메트르 생고뱅 디지털가속 프로그램 매니저의 말이다. 그는 디스커버리가 자료를 좁히고 화학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분석하는 일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생고뱅은 1665년 루이 14세가 베르사유 궁전에 쓸 거울 제작을 맡기면서 출발한 회사다. 당시 목적은 유리 제조를 쥐고 있던 베네치아의 독점을 깨 비용을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지금은 81개국에서 16만1000명이 유리와 석고, 단열재, 시멘트 첨가제를 만든다. 공식 발표문에 따르면 2025년 매출은 465억 유로이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기후

센트럴조지아EMC, 가정용 배터리 50MW 배치

조지아주 전기협동조합이 2027년부터 가정에 소형 배터리를 최대 50메가와트까지 깔아 피크를 깎는다. 관할 구역에는 240메가와트 데이터센터 단지가 들어선다.



1 센트럴조지아EMC가 베이스파워와 함께 2027년부터 가정에 설치하는 소형 배터리를 최대 50메가와트까지 배치한다고 밝혔다.

2 조합은 도매 가격과 수요가 낮을 때 배터리를 채우고 피크 시간에 내보내 애틀랜타 남동쪽 14개 카운티 전력망의 부담을 나눈다.

3 조합 구역에는 햄프턴 인근 240메가와트 단지를 비롯한 데이터센터 사업이 제안돼 있고, 조합은 대형 수요처가 송전·변전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는 조건을 공식 안내문에 적어 뒀다.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협동조합 센트럴조지아EMC가 가정에 설치하는 소형 배터리를 최대 50메가와트까지 깔아 전력망 피크를 깎는 사업을 시작한다. 보도에 따르면 조합은 10월 13일 베이스파워와 손잡고 2027년부터 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트럴조지아EMC 관할 구역에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들이 접속을 신청해 둔 상태다.

사업 구조는 단순하다. 도매 전력 가격과 조합원 수요가 낮을 때 가정의 배터리를 채우고,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내보낸다. 애틀랜타 남동쪽 14개 카운티에 걸친 조합 전력망의 부담을 집집마다 놓인 배터리로 나누어 받는 방식이다.

규모를 키우는 쪽은 데이터센터다. 조합 구역에는 여러 데이터센터 사업이 제안되거나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는 햄프턴 인근의 240메가와트 규모 단지도 있다. 가정용 배터리 50메가와트는 그 수요가 들어올 때 전력망이 견딜 여력을 미리 만들어 두는 장치다.

비즈니스

아마존, 2027년 독일에 160억 유로 투자 발표

아마존이 2027년 독일에 160억 유로 넘게 투자한다. 약 48억 유로가 프랑크푸르트 AWS 리전에 들어가고 위성 인터넷과 베를린 두 번째 로봇·AI 연구소가 새로 더해졌다.



1 아마존은 10월 20일 베를린 인베스트 인 저머니 서밋에서 2027년 독일에 160억 유로 넘게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2 약 48억 유로는 프랑크푸르트 AWS 유럽 리전 확장에 쓰이고, 아마존 레오 위성 인터넷과 베를린 두 번째 로봇·AI 연구소, 물류센터, 프라임 비디오 제작이 함께 들어갔다.

3 아마존은 2010년 이후 독일에 1000억 유로 넘게 투자했고 2025년에만 150억 유로를 썼으며, 정규직은 4만 명을 넘는다.

아마존이 2027년 한 해 동안 독일에 160억 유로 넘게 투자하겠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독일 연방정부가 베를린에서 연 인베스트 인 저머니 서밋에서 내놓은 계획으로,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 확충, 저궤도 위성 인터넷 아마존 레오, 전국 물류 거점, 프라임 비디오 제작이 한 묶음으로 들어갔다. 이 가운데 약 48억 유로가 프랑크푸르트의 AWS 유럽 리전 확장에 쓰인다.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최고글로벌업무·법무책임자는 "독일은 혁신의 중심이자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가운데 하나"라며 "2010년부터 1000억 유로 넘게 투자했고 2027년 160억 유로를 더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숫자는 지금까지의 궤적 위에 놓인다. 아마존에 따르면 회사는 2010년 이후 독일에 1000억 유로 넘게 투자했고 2025년 한 해에만 150억 유로를 썼다. 독일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100곳 넘는 사업장에 4만 명을 넘고, 이미 발표한 물류 사업으로 일자리 3000개 이상이 더 생긴다. 보도에 따르면 전체 투자액의 3분의 1 가까이가 데이터센터 확충에 들어간다.

가장 큰 몫은 클라우드와 AI다. 아마존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프랑크푸르트 리전 데이터센터에 96억 유로를 투자했고, 2024년에는 2026년까지 88억 유로를 더 넣겠다고 발표했다. 브란덴부르크주의 AWS 유럽 소버린 클라우드는 2026년 1월 정식 출시됐고 2024년부터 2040년까지 78억 유로 투자가 계획돼 있다. 이 클라우드는 고객이 만든 콘텐츠와 메타데이터를 모두 EU 안에 두고, 다른 AWS 리전과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돼 EU 거주 인력만 운영한다. 바깥 세계와 연결이 끊겨도 멈추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것이 회사 설명이며, 관련 채용 공고는 100건이 넘는다. 슈테판 회히바우어 AWS 독일·중부유럽 글로벌 영업 부사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기업에는 믿고 기댈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독일의 혁신을 위해 계속 투자하겠다고 말했다.